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현대불교신문사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이 주최한 한국의 큰스님 20분의 진영 자수전시회 '아! 큰스님'展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어른스님들과 각 문종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창작단체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남한의 불교와 북한의 예술과의 만남을 시도한 이번 전시를 후원해주신 문화관광부·봉축위원회·핸드코리아 관계자들과 성원해주신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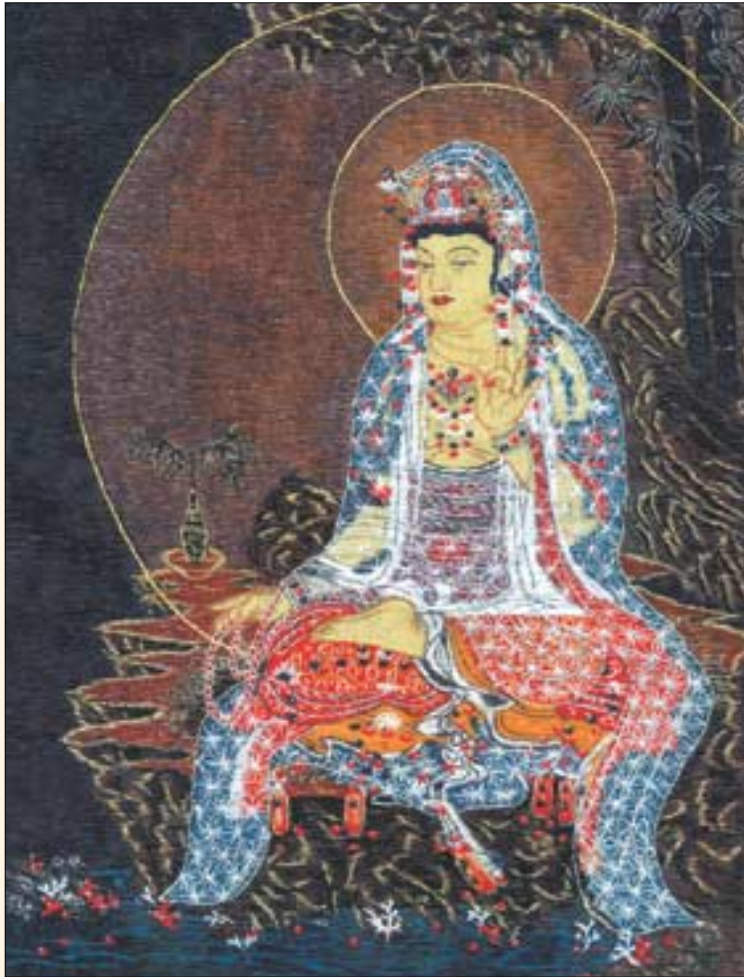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시 작품에 대한 구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본사는 북한 만수대창작사와 추가 주문에 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 작품은 물론 개인적으로 자수 제작을 원하시는 초상 작품이나 불화 석조 조형물 등 간직하고 싶은 귀한 조형물 작품에 대해서도 주문을 받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소재·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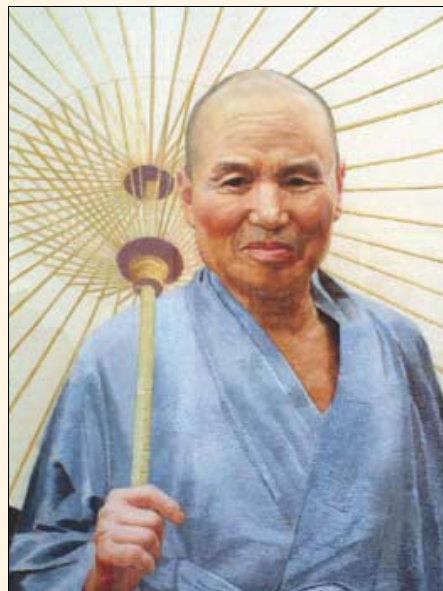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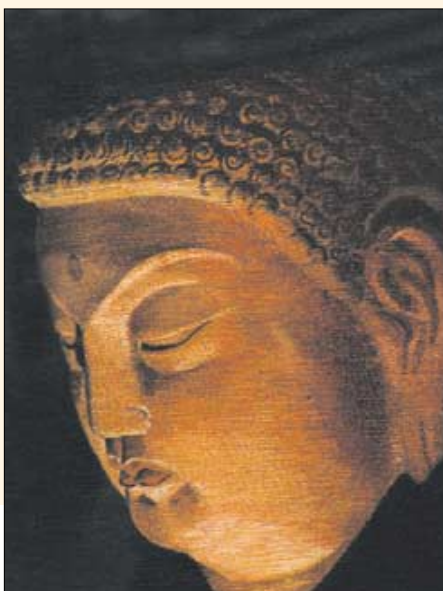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음용스님 진영 사진모습)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우산소의스님)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림암부처(조물부))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가족사진)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명주실·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만수대창작사 핸드포토 불교자수 특징

법당 탱화로 적격

법당을 신축 중 개축하거나 불보살님을 모시려는 사찰에서는 한뼘 한뼘 손자수로 수놓은 불화나 탱화로 모시기를 권합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자수 작품은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수놓았으며 한뼘한뼘 정예의 소속 단원들이 만듭니다.

자수는 예술적인 면에서 그림이자 입체감이 있는 부조품이며, 그 정교하기가 사진보다 더욱 세밀하고 사실감이 납니다.

또한 예술로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성으로 유일하게 변형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이 작품들은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대대손손 가보로 소장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국내 전통자수는 고 임금 저 효율의 작업

상의 특성으로 70년대 이후 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한복 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되는 분야에서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북한의 자수는 전통자수 외에도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오히려 그 장르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근세 예술의 극치'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초상자수는 한 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할 경우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 및 역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작품이 창작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동양의 사상 문화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창작사'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더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북한 미술계 리드

만수대창작사는 어떤곳?

59년 창립...최고 창작단체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11월17일 창립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직속의 북한내 최고 최대의 창작단체이다.

평양시 평천구역 정평동에 위치한 만수대창작사에는 수예창작단을 비롯해 조선화창작단, 유화창작단, 벽화창작단, 조각창작단, 보석화창작단, 만년화창작단, 공예창작단, 도자기창작단, 출판화창작단, 부동산개

각, 공예, 출판미술, 산업미술, 건축장식미술 등 각종 순수예술과 공예 예술품을 창작하고 있으며, 유명 월북화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가 소속되어 있다.

만수대창작사가 최대, 최고수준의 창작단체로 유지됨에 있어 예술적 기량과 우수한 예술가들의 확보는, 우선 평양미대졸업생 등 뛰어난 신진작가들의 입사와, 입사후 체계적인 창작수업을 통하여 이름난 예술가로 육성하

수예창작단 등 20개 제작단... 인력 4천여명 보유

기념비·동상·벽화 등 30여개국에 수출·전시도

발창작단 등 각 분야별로 세분된 20여개의 창작단과 제작단에 100여명의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와 4,000여명의 성원(창작가와 지원인원,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및 고려무역상사 포함)들이 소속되어 회화, 조

기도 하지만, 다른 창작사나 대학 교원, 무소속 예술가들 중에서 뛰어난 작가를 만수대창작사로 배치하여, 소속을 바꿈으로써 만수대창작사는 불변의 최고, 최대의 창작단체로 유지되고 있다.

용도

- * 불화(탱화, 불보살도)
-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 불교성보(탑, 종, 범당, 불상 등)
-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 기업기념사진(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주문시 유의사항

- * 머리카라,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뚜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2-1520 팩스 (02)727-0697
www.buddhanews.com

주문안내

- * 대형(60cm×80cm)
- * 중형(30cm×40cm)
-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한암·효봉·동산·청담·성철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